

광주서 기선 제압한 KIA, 잠실서 마침표 찍는다

오늘 LG와 준PO 3차전…시라카와·카라스코 선발 맞대결

김도영·카스트로 타격감 관전…3연승 땀 나흘간 재 정비

KIA타이거즈가 잠실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짓기 위한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안방에서 준플레이오프 2연승을 거두며 기선을 제압한 KIA는 여세를 몰아 시리즈를 조기에 끝내겠다는 각오다.

KIA는 2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LG트윈스와 2026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5전 3선승제) 3차전을 치른다.

지난 17~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1·2차전에서 각각 5-1, 6-3으로 승리한 KIA는 시리즈 전적 2승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다.

이번 경기는 KIA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전신 해대 시절을 포함해 1994년과 2004년, 2006년, 2011년 등 네 차례 준플레이오프에 나섰지만 한 번도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차전마저 잡는다면 준플레이오프 탈락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시리즈 조기 종료에 따른 이점도 크다.

플레이오프 1차전은 오는 25일 정규시즌 2위 삼성라이온즈의 홈에서 열릴 예정이다. KIA가 20일 3차전에서 승부를 끝내면 나흘간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다.

특히 준플레이오프 1·2차전 승리를 이끈 외국인 원투펀치 제임스 네일과 아담 윌러를 플레이오프 초반부터 다시 가동할

여유가 생긴다. 반면 시리즈가 길어질수록 선발 로테이션과 불펜 운용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3차전 승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관건은 선발 맞대결이다.

KIA는 아시아쿼터 투수 시라카와를 선발로 내세운다. 시라카와는 올 시즌 18경기에서 4승 5패 평균자책점 4.75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가 KBO리그 포스트시즌 첫 등판이다.

LG를 상대로는 다소 고전했다. 정규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9.1이닝 동안 8실점하며 1패 평균자책점 7.71을 기록했다. 피홈런 4개를 허용한 만큼 장타 억제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맞서는 LG 선발은 메이저리그 통산 112승의 경력을 지닌 카를로스 카라스코다.

카라스코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6승 3패 평균자책점 4.05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두산베어스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을 준플레이오프로 이끌었다.

다만 KIA를 상대로는 지난 3일 4.1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흔들린 바 있다. KIA 타선이 경기 초반 카라스코를 얼마나 공략하느냐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타선에서는 김도영과 카스트로의 방망이에 기대가 쏠린다.



지난 18일 LG트윈스와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승리한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IA타이거즈

김도영은 1차전에서 역전 솔로포와 쉼기 투런포를 터뜨리고 희생플라이까지 더해 4타점을 쓸어 담으며 5-1 승리를 이끌었다.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LG를 상대로 시즌 45호 홈런을 터뜨렸던 기세를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어가고 있다.

카스트로 역시 1차전에서 동점 솔로포를 날린 데 이어 2차전에서는 선제 결승타를 기록하며 중심타선의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 2차전에서 멀티히트와 도루를 기록한 박재현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마운드에서는 전상현이 이틀 연속 경기

막판 LG의 추격을 차단했다. 특히 2차전에서는 1.1이닝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올리며 데일리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LG는 남은 세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벼랑 끝 상황이다. 반면 KIA는 3차전에서 시리즈를 마

무리하면 체력적인 부담을 줄인 채 삼성과의 다음 승부를 준비할 수 있다.

광주에서 거둔 2연승의 기세를 잠실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KIA가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 덴마크 오픈 2연패…시즌 9관왕

세계 3위 아마구치에 2-1 역전승…상대 전적 10연승

시즌 61승 1패·승률 98.4%…프랑스 오픈서 10승 겨냥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덴마크 오픈 2연패를 달성하며 올 시즌 9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올해 61승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이어가며 세계 최강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지난 18일(한국시간)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3위 아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1(21-23 21-14 21-18)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안세영은 지난해에 이어 덴마크 오픈 2연패를 달성했다. 앞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 사상 최초로 2연패를 이룬 데 이어 또 하나의 우승 기록을 추가했다.

특히 아마구치를 상대로 최근 10연승을 이어가며 천적 관계를 굳혔다.

올 시즌 성적도 경이롭다. 안세영은 올

해 출전한 62경기에서 61승 1패를 기록하며 승률 98.4%를 유지하고 있다. 준우승에 머물렀던 전영오픈을 제외하면 아시안 게임을 포함해 출전한 9개 개인전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결승은 쉽지 않은 승부였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4-6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6연속 득점하며 10-6으로 역전했다. 이후 주도권을 유지했지만 막판 아마구치의 반격에 18-18 동점을 허용했고, 듀스 점전 끝에 21-23으로 첫 게임을 내쳤다.

2게임에서는 집중력이 빛났다. 11-13으로 끌려가던 안세영은 7점을 연달아 따내며 흐름을 뒤집었고, 21-14로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마지막 3게임에서는 위기로 찾아왔다. 경기 도중 오른팔에 불편함을 호소한 안세영은 상태를 점검한 뒤 경기를 이어갔지만, 5-11로 뒤진 채 인터벌을 맞았다.

그러나 안세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9-12에서 상대 범실을 유도하며 12-12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연속 득점으로 16-12까지 달아나며 승부를 뒤집었다.

아마구치가 끈질기게 추격했지만 안세영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20-17에서 한 점을 내준 뒤 이어진 랠리에서 상대 리시브가 코트 밖으로 벗어나면서 21-18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우승으로 안세영은 지난해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 경신에도 한 걸음 다가섰다.

안세영은 지난해 11차례 우승하며 모모타 겐토(일본)와 함께 남녀 단식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거록을 작성했다. 올해도 이미 9차례 정상에 오른 만큼 남은 대회 결과에 따라 자신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안세영의 다음 무대는 20일부터 열리는 프랑스 오픈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통합 첫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전남광주 하나로”

장성군, 화합 한마당 개최…27개 시·구·군 선수단 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통합특별시 출범 후 통합체전으로 개최한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함께 뛰는 성장장성, 하나되는 전남광주’를 슬로건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장성 옐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광주 27개 시·구·군 장애인 선수단과 임원 2248명이 참가

해 14개 종목별 경기에 참여하며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이틀간 펼쳐진 대회 결과, 우수종목 경기단체상은 전남장애인탁구협회가 수상했으며, 으뜸상에 해남군, 응원상 보성군, 질서상 나주시, 열정상 영암군, 장려상 함평군, 어울림상 구례군, 특별상은 광산구가 받았다. 개최자인 장성군은 종목별 경기에서 파크골프 여자부 2위에 올랐다.

폐회식도 개최식이 열렸던 옐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진행해 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 선수들의 이동 편의 또한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은 함께 뛰는 성장장성, 하나되는 전남광주'를 슬로건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장성 옐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했다. 개최식 무대를 그대로 사용해 무대 설치 예산 등 3000만원을 절감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해

성장장성의 위상을 높였다”며 “장성을 찾은 선수단과 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자원봉사자, 환대에 주신 군민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JEJU 2026

전남 윤미르, 시련 딛고 금빛 발차기

전국체전 태권도 남자 18세 이하부 -74kg급 정상

“마지막 5초를 남기고 역전 발차기가 들어갔을 때의 짜릿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역전승으로 전국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윤미르(여수고 3년)가 부상과 슬럼프를 이겨낸 감격을 전했다.

윤미르는 지난 17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남자 18세 이하부 -74kg급 결승에서 경기 종료 5초를 남기고 역전 발차기를 성공시키며 정상에 올랐다.

고교 생활 마지막 전국체전에서 거둔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남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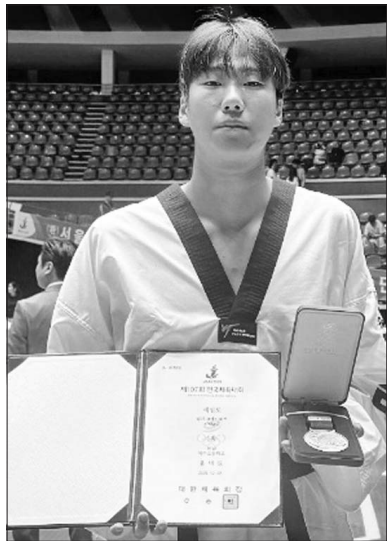
윤미르는 올해 2월 제주평화기 대회 준우승과 6월 카자흐스탄 국가대표 대회 3위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시즌 중반 부상과 컨디션 난조가 겹치면서 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앞선 두 차례 전국체전에서도 조기 탈락했던 만큼 마지막 도전에 대한 부담도 컸다.

이후현 코치는 “동계훈련을 잘 마쳤지만 부상으로 초반 대회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며 “3월부터 9월까지 컨디션 난조가 이어지면서 전국대회 본선에 출전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돌아봤다.

윤미르 역시 부상과 함께 체력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하거나 초반에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들었다”며 “특히 경기 종료 10초를 남겨두고 체력이 떨어져 실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치님과 트랙 달리기를 반복하며 체력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다.

그동안의 훈련은 결승전 마지막 순간 빛을 발했다.

윤미르는 “결승에서도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지만 선배들과 코치님의 응원을 떠올리며 정신력으로 버텼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발차기가 득점으로 연결돼 정말 뿌듯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수에서 처음 태권도를 시작한 윤미르는 금메달의 공을 자신을 지지해 준 가족과 지도자들에게 돌렸다.

그는 “항상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현 코치님, 이전 코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흥분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조언 덕분에 경기 흐름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교 무대의 마지막 전국체전을 금메달로 장식한 윤미르의 시선은 이제 대학과 성인 무대로 향하고 있다.

그는 “대학에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실력을 쌓아 좋은 실업팀에 입단하고 싶다”고 포부를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